

해외여행·항공권·어권비자 수속
불교성지순례 전문

(주) 예조여행사

인국통로티리(조계사일)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3층

전화: (02)733-3900

“통일이여 어서오라” 넋들의 기원

6·25 47주년 호국영령 안식처 양양 영혈사

영혈사는 6·25전쟁에서 산화한 특전대(36지구대) 영령들의 안식처다. 설악산 대청봉 동남쪽, 관모봉아래 야트막한 산자락에 위치한 양양을 화일리 영혈사(靈穴寺)라 한다. 길은 다른 사람의 풍경과 다름없지만 고개속이 합창하면 마음까지 빨려든다. 그래서인지 이곳엔 6·25전쟁에서 군번도 없이 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우다 끝다른 침훈을 바친 1백 67명의 호국영령들이 부처님존안에 잠들

도리라고 강조한다. 휴전이후 영혈사는 6·25전쟁에서 산화한 무명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시작했다. 처음 이곳에 특전대 영령을 모시게 된 것은 1955년, 특전대 대원이었던 김동석씨(36동지회 명예회장)가 꿈을 꾸던 것이 계기가 됐다.

“6·25전쟁 당시 순직한 대원들은 설악산 자락 넓은 바위에 모여 있었습다. 바위 한가운데서 연꽃이 활짝피었고 대원들은 그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편안하게 보였습니다”고 김동석씨는 말한다. 김씨는 그곳을 찾기 위해 설악산 일대를 찾아다니다 당시 영혈사 주지스님도 똑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영혈사와 특전대원들은 군번없이



▲영혈사 지장전에는 특전대(36지구대) 호국영령 167위가 안치돼 있다.

순직한 대원들의 위패를 법당에 안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사자로 파악된 1백 54명의 위패를 처음으로 안치하고 편안히 잠들 것을 기원했다.

“이곳은 전우영령들의 영인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들은 동지영령들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동지들의 전종이 후세에 영원히 빛나도록 후배들은 공덕지정(功德之請)으로 더 더욱 일체단결하여 말은바 애국시인으로 학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지들 아무걱정 말고 부처님 품에서 극락왕생하시라.”

(36동지회 기원문 중에서)

▼영혈사는 매년 부처님오신날 합동위령대제를 지낸다.



분들의 넋을 추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평화와 자유를 쉽게 누리는 것입니다.”

호국영령들의 위패를 모시고 위령재를 지내는 장소가 퍼지자 군(軍)과 관(官)에서 관심을 가졌다. 군에서는 도로, 포장을 해 주었고 양양군청에서는 위령재를 지역행사로 확대해 이제는 타 지역의 호국위령재에 비해 손색이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나 대원들은 속이 상한다. 영령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거창한 위령재가 아니라 통일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안락만을 위해 사는 것보다 조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6·25 전사자들.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평화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다. 영혈사에 안치된 호국영령들은 42년째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글=김준근 사진=고영배 기자

설악산 전투 생존자 '36동지회' 42년째 전몰 167명 위령재 그들이 조국에 청춘 바쳤기에 우리는 자유와 평화 누린다 “부처님품서 극락왕생하소서”

어 있다. 그들에게 이곳이 극락인 셈이다.

“한국전쟁 당시 설악산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더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 통일만을 위해 싸우다가 설악산 능선과 계곡에서 한줌의 흙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혈사에 모셔진 호국영령들은 당시 최고 장에부대였던 특수부대원들의 영령에 불과합니다.”

영혈사 주지 현각스님은 수많은 무명용사의 영령들이 50년간 설악산의 능선과 계곡을 떠돌며 울부짖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을 천도하는 것 또한 불제자의

순직한 대원들의 위패를 법당에 안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사자로 파악된 1백 54명의 위패를 처음으로 안치하고 편안히 잠들 것을 기원했다.

“이곳은 전우영령들의 영인한 안식처입니다. 우리들은 동지영령들과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 것입니다. 동지들의 전종이 후세에 영원히 빛나도록 후배들은 공덕지정(功德之請)으로 더 더욱 일체단결하여 말은바 애국시인으로 학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동지들 아무걱정 말고 부처님 품에서 극락왕생하시라.”

(36동지회 기원문 중에서)



◇위패가 안치된 지장전과 참전병사들의 발원으로 세운 총명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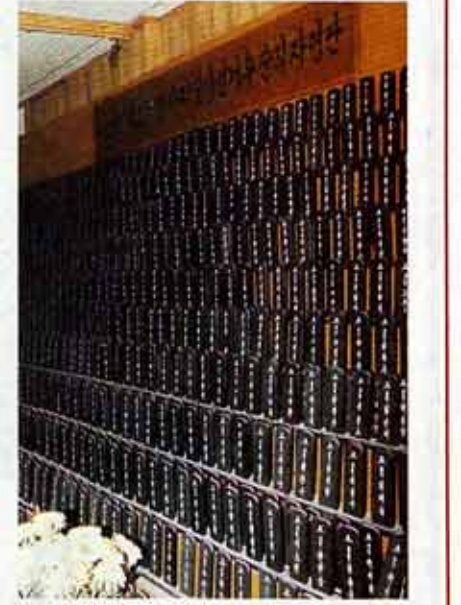
호국영령 1052위 모신곳 “선배전우 뜻 받들겠습니다”

고성 건봉사 22사단 전의신고장

강원 고성 건봉사(주지 영수)는 초임장교들의 신고직장으로 변해 이제 됐다. 22사단은 전임해오는 초임장교들에게 가장 먼저 선배전우들의 영령이 있는 건봉사에 분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선배전우들의 뜻을 받들어 통일을 위해 한복속 바쳐왔다는 의지와 22사단인임을 확인하는 신고식이다.

현재 건봉사에 6·25전사자와 사단장살이후 순직한 1052위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이 위패들은 주로 건봉사 일대 전투에서 순직한 군인들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방치돼 오던 것을 6·25 직후 건봉사에 하나둘씩 안치된 것으로 전해온다. 건봉사는 93년 대웅전을 중창하면서 옛 대웅전을 지장전으로 바꿔 위패를 새로 안치했다. 이때부터 건봉사와 22사단은 현충일과 백승날 두차례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호국위령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또 매주 일요일에는 군인법회도 실시한다.

민간의 출입이 가능해진 92년부터는 6·25 전사자들의 위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가족의 생사를 확인, 위패를 모셔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건봉사 지장전에는 22사단 지역 6·25 전사자와 사단 장살이후 순직한 1052위의 위패가 안치돼 있다.

42년째 영혈사 위령재 모신 황일선보살



“군번 6200206. 이름 박정권. 누가 이런 군인을 아십니까. 1951년 1월 대관령 전투에서 통일을 위하여 싸우다 제 남편입니다.”

.....

42년째 영혈사 위령재를 모시고 있는 황일선보살(69). 그의 머리는 ‘6·25 전쟁’으로 깎아졌다. 보살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1951년 1월 대관령전투였다. 적군과 아군이 밀고 밀리는 전투가 밤낮없이 이어졌고 황씨는 동족상잔의 참혹함과 남편의 죽음을 가난한 여자의 몸으로 감내해야만 했다.

“적군의 포탄에 맞아 내장이 파열된 남편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6·25를 겪어도 이처럼 비참하게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황보살은 남편의 파열된 내장을 일일이 북부속으로 집어넣고 꿰맸다. 그리고 남편의 군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남편의 군복으로 갈아 입고 추송길에 올랐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간절한 마음을 모른 채 싸늘히 식어갔다. ‘내

“전쟁만큼 참혹한 건 없어요”

남편만은...” 이라고 생각했던 간절한 소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고 회고하는 그는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황보살은 남편의 죽음을 계기로 조국을 수호하다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영혈사 위령재의 재물준비를 뒷바라지를 해 오고

포탄맞은 남편 튀어나온 장기 집어넣고 꿰맸으나 끝내 주검 “北 식량지원도 통일준비”

있다.

그는 대관령전투 현장을 이렇게 말한다. “높은 대관령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시체로 가득해 능선과 계곡을 메울 정도였습니다. 온 산하가 시체, 화약냄새, 피땀으로 가득했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군가중의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 바로 그 현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더군요.”

황보살은 대관령전투의 부상당한 3천28명을 태운 후송선(LST)을 목호항에서 탔다. “어머니를 목매어 부르다가 죽어가는 병사, 아픔을 참지 못해 절규하다 쓰러져간 병사를 비롯 시간이 지날수록 후송선에는 산 자보다는 죽은 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결국 부산항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병사는 4명에 불과했습니다”며 지금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울먹였다.

황보살은 휴전이후 강원도 양양으로 돌아와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일이면 무엇이든지 발벗고 나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영혈사 무명용사 위령재가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3·1절사추모제를 비롯 예비군 훈련장, 학교 등 각종 단체 행사에 참석, 6·25 제일당표표를 해 오고 있다.

황일선보살은 “굶어죽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기 위해 식량을 보내는 마음이 모아지면 통일의 그 날은 성큼 다가올 것이다”며 ‘남편이 이루지 못한 통일을 이생에 보는데 소원이다’고 말한다.